



스테인드글라스 작가 감성원

빛으로 연주하고 창으로 소통하다

작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꺼이 '빛'에 양보한다. 빛과 함께 만들어낸 가장 극적인 컬러배레이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내는 스테인드글라스는 한마디로 느끼고 체험하는 예술이다. 감성원 작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위해 스테인드글라스로 소통의 창을 내었다.

Writer 감현숙
Photo 한수정



스테인드글라스를 품은 공간에 머물러본 이라면 알 것이다. 빛과 유리와 색의 조화가 아름다운을 뛰어넘어 감격적이라는 사실을. 공간을 지배하는 공기를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꾸어놓는 스테인드글라스는 그래서 보는 예술이 아니라 체험하는 예술이다. 머리로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음의 울림이 남는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감성원이 어느 날 스테인드글라스에 빠진 것도 이 공감과 소통의 매력 때문이다.

“현대 회화는 작가가 표현하는 상징을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어렵게 느낍니다. 한 편으로는 예술을 향유하는 자체가 소수의 특권, 부를 과시하는 행위와 연결되는 분위기도 팽배해요. 데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놓고 미학적 측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인가’부터 따지는 것이지요.”

안타까웠다. 그가 그림을 그리며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소통’이지만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시선은 소통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극복하고 싶었다. 좀 더 쉽게 말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즐기고,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예술은 없을까. 그 치열한 고민 끝에 찾은 답이 스테인드글라스다.

빛으로 그린 그림

“소유와 특권의 개념을 벗어난 공공미술과 회화의 접점은 없을까. 이를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니 건축이나 환경의 일부가 되는 그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빛과 공공미술의 접점인 스테인드글라스가 떠오른 것이지요. 스테인드글라스도 오브제로서 화랑에 걸려 있다면 위화감을 지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공공 건축물의 창문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쉽게 보고 즐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소통과 예술의 순작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 채색하는 그림과 유리에 빛을 투과시키는 스테인드글라스. 이 둘의 질감은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감성원은 스테인드글라스 역시 확고한 회화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회화라면 유리에 빛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스테인드글라스라는 것. 캔버스를 대신하는 유리 자체의 영롱함과 공간을 채우는 빛의 예술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다고. 이렇게 어려운 미술, 특별한 사람들만 찾던 예술을 조금 더 쉽게 투과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술의 영역으로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하는 이는 다섯 손가락이면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 감성원이 스테인드글라스에 처음 관심을 가진 1998년도에는 국내에서 제대로 배울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2년 뒤 그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스테인드글라스본 아니라 현대적인 유리공예 전반까지 배우게 되었지요. 투명하면서도 막혀 있고, 단단하지만 깨지면 날카로우며, 두께가 있으면서도 굴절이 있는 유리의 특성을 살피며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예술적인 면까지 두루 익혔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가장 발달한 프랑스에서 학생으로서 감사로서 작가로서 무려 8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는 빛을 자유롭게 '연주'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

소통의 창, 스테인드글라스

감성원은 농담처럼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종합노동'이라고 소개한다. 그만큼 과정이 복잡하고 노동량 역시 어마어마하다. 색유리를 도안에 맞게 자를때 1mm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내구성을 높이도록 600℃ 온도의 가마에 굽기까지 해야 한다. 유리 조각을 조합해 납땜으로 고정시키는 것도 그의 몫. 혹시나 모를 파손의 위험에 대비해 작품을 포장하고 운송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모두 직접 나선다.

“이 정도도 간략하게 소개한 거예요. 채색 전에 유리의 불순물을 식초로 모두 닦아내야 하고, 채색 후 굽는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각당 2~3번을 거치니 50X50cm 크기 작품을 완성하는 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성당 작업의 경우 8개월에서 1년가량 매달려요.”

자르고 굽고 맞추는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은 늘 낯선 채로 이뤄진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작가 자신도 빛을 발산하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조립을 다 끝낸 다음 세워서 들어 올리는 순간, 빛 그림자와 처음 마주하는 그 찰나를 감성원은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말한다. 6~7m 높이의 창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직접 설치를 끝낸 다음 빛을 쏟아내는 공간 가운데 섰을 때의 보람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감동은 많은 사람이 그 빛을 즐길 때 온다.

“어느 누구도 스테인드글라스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소유하려 들지도 않고, 대단한 특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분위기, 감성, 공기를 마음으로 즐기고 받아들일 뿐이지요. 제가 열망하는 소통이 공공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순간, 저 역시 가장 행복합니다.”

가톨릭 제1성지로 꼽히는 당진 솔뫼성지, 청주 용당동성당, 공군중앙성당은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공간이다. 이곳의 작품은 ‘결’이라는 테마로 각각 물의 결, 마음의 결, 바람의 결을 표현하고 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감성원은 그 안에 예술가로서의 시선 역시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다. 그렇다고 그곳에 가서 분석하길 원하는 건 아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사진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악보만 보는 것이죠. 반드시 현장에 가서 빛 속에 몸을 담궈야 해요. 음악을 들듯 몸을 내맡기는 것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꿈꾼다. 누구에게나 정서적 공감을 주는 예술, 대중적 공간에서 만나는 예술, 오브제가 아닌 환경이 되는 예술... 유리를 캔버스 삼아, 빛을 악기 삼아 함께 어우러지는 그의 스테인드글라스 예술은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이다. 

